

#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MBTI)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연구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 A Study of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by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in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Mi Cho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존감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이 없는 대상자는 55.1%였고, 경미한 우울이 18.6%, 중한 우울이 9.6%, 심한 우울이 16.8%로 절반의 학생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은 MBTI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F=0.961, p=0.499$ ) 주거방식( $F=4.594, p=0.011$ ), 전공만족과( $F=17.651, p<.001$ ), 학교생활적응에( $F=27.361, p<.001$ )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은 MBTI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F=2.032, p=0.016$ ), 성적( $t=5.088, p=0.002$ ), 이성친구유무( $t=5.132, p=0.025$ )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40, p<.001$ ).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개인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고 학생으로서의 학교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depression and self-esteem questionnaire from nursing students from May to June 202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post hoc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in SPSS 24.0. The results showed that 55.1%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not depressed, 18.6% were mildly depressed, 9.6% were moderately depressed, and 16.8% were severely depressed, which indicated that almost half of the students experienced depression. This depression was not influenced by MBTI personality type ( $F=0.961, p=0.499$ ) bu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ype of dwelling ( $F=4.594, p=0.011$ ), satisfaction with chosen major ( $F=17.651, p<.001$ ), and school adjustment ( $F=27.361, p<.001$ ).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was dependent on MBTI ( $F=2.032, p=0.016$ ), grades ( $t=5.088, p=0.002$ ), and having a boyfriend/girlfriend ( $t=5.132, p=0.025$ ). Furthermore,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 $r=-.640, p<.001$ ). This study shows that depression is not significantly dependent on an individual's MBTI personality type. To improve nursing student self-esteem, more effort is need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ollege life.

**Keywords** : Depression, Self-esteem, MBTI,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Cho(Sunmoon Univ.)

email: choyoung23@sunmoon.ac.kr

Received December 29, 2023

Revised January 24, 2024

Accepted March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 1. 서론

우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며, 2030년에는 전세계 1위의 질병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1].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발병 이후 작은 자극에서 강한 분노 또는 우울로 정서가 변하는 정서의 불안전성이 심화하여 성인들의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우울증 환자는 93만 3천명이 넘는 숫자로, 이는 2017년 대비 35.1%가 증가한 수치이다[3]. 우울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없을 때 발현되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정의된다[4]. 그중 대학생의 우울은 자신이 처한 개인적 사정이나 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에게 우울은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5] 학업성취도를 낮게 하며, 학업중단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6]. 더불어 우울은 대학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졸업 후 사회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5]. 간호대학생의 경우 우울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며,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7].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8].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사용되는 보편적인 검사가 MBTI 검사인데, MBTI는 성격을 16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심리도구이다. 이 검사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신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MBTI별 우울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믿는 믿음으로[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수용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 또

한 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성취감을 높게 하여[12] 대학생에게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의 성격 특성과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TI를 바탕으로 하여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과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변수들간이 차이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울 상담 프로그램,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MBTI의 구성 비율을 파악하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MBTI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M시 소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5월에서 6월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로 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에 동의한 사람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며 응답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3일 때 최소 134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고, 200명의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총 167건의 설문지가 응답되어 파일로 저장되었다[10]. 이에 167명의 응답으로 최종분석을 시행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검사는 Briggs와 Myers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김정택과 심혜숙에[13]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MBTI Form G형을 사용하였다. MBTI는 두 가지씩의 양극을 이루는 네 쌍의 선호 지표가 있고, 이를 조합하면 16가지의 MBTI 성격유형으로 표시된다. 네 쌍의 지표는 에너지 방향에 따라 외향형-내향형(Extroversion-Introversion, EI), 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직관형(Sensing-iNtuitioin, SN), 판단기능에 따라 사고형-감정형(Thinking-Feeling, TF) 그리고 행동양식에 따라 판단형-인식형(Judgment-Perception, JP)으로 선호지표가 구분된다. 또한 MBTI에 의한 심리 기능유형은 감각사고형(Sensing Thinking, ST), 감각감정형(Sensing-Feeling, SF), 직관감정형(iNtuitioin Feeling, NF)과 직관-사고형(iNtuitioin Thinking, NT)으로 분류되며, 심리기질유형은 감각판단형(Sensing Judgment, SJ), 감각인식형(Sensing Perception, SP), 직관감정형(iNtuitioin Feeling,NF)과 직관사고형(iNtuitioin Thinking, NT)으로 분류된다[18]. 본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EI, SN,TF, JP)와 심리기능(ST, SF, NF, NT)을 중심으로 보고자하였다.

### 2.3.2 우울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ES-D(Center for Epidemi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지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더욱 쉽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번역된 여러 가지 CES-D척도를 통합하여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14]이 타당화 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에 대해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로(1~2일)’ 1점, ‘상당히(3~4일)’ 2점, ‘대부분(5~7일)’ 3점으로 이루어져있다. 점수의 범위는 0~15점은 정상, 16~20점은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60점은 심한 우울로 분류된다. 전경구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8$ 로 나타났다.

###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로 Rosenberg가[10]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전병제[15]가 국내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과 부정문항 각 5문항 2가지 하위척도를 가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병제[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였다.

##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Analysis of Variance),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고 유의 수준은 0.05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127명(76%), 남자는 40명(24%)이었고 평균나이는  $24.3 \pm 4$ 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04명(62.3%)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8명(28.7%),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6명(3.6%), 9명(5.4%)이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거주하는 대상자가 56명(33.5%), 기숙사 이용이 58명(34.7%), 자취하는 대상자는 53명(34.7%)이었다. 성적의 경우 평점이 3점 미만인 학생이 10명(6%)이었고, 3.0~3.5는 43명(25.7%), 3.6~4.0이 가장 많은 89명(53.3%), 4.1이상이 25명(15%)이었다. 이성친구는 없는 학생이 더 많아 96명(57.5)이었고, 있는 학생이 71명(42.5%)이었다. 1명의 형제가 있는 대상자가 106명(63.5%)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의 형제는 36명(21.6%), 3명 이상은 14명(8.4%), 외동인 대상자는 11명(6.6%)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6명(3.6%)이었고 보통이 63명(37.7%),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8명(58.7%)이었다.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는 78명(46.7%), 학과 적응을 무난히 한 대상자는 89명(53.3%)이었다.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는 외향형(E)은 60명(35.9%), 내향형(I) 107명(64.1%), 직관형(N) 63명(37.7%), 감각형(S)이 104명(62.3%), 사고형(T) 66명(39.5%), 감정형(F)이 101명(60.5%), 판단형(J)이 73명(43.7%), 인식형이 94명(56.3%)로 나타났다. 심리기능지표는 NT형 30명(18%), NF형 33명(19.8%), ST형 36명(21.6%), SF형 68명(40.7%)로 나타났다. MBTI 성격유형은 ISFP가 32명(1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ISFJ 14명(8.4%)으로 많았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7)

		N	%	depression			self-esteem			
				M	SD	F(p)	M	SD	F(p)	
gender	male	40	24	14.05	12.36	1.633(0.203)	3.75	0.73	1.888(0.171)	
	female	127	76	16.65	10.86		3.57	0.74		
age 24.3±4	20-25	141	84.4	16.57	11.46	1.148(0.32)	3.59	0.76	0.779(0.46)	
	26-30	17	10.2	13.88	10.27		3.65	0.58		
	over 31	9	5.4	11.67	9.25		3.90	0.55		
religion	christian	48	28.7	16.40	11.64	0.949(0.419)	3.65	0.83	0.558(0.643)	
	catholic	6	3.6	13.83	7.25		3.40	0.50		
	buddhism	9	5.4	10.22	7.43		3.84	0.92		
	none	104	62.3	16.49	11.49		3.58	0.69		
types of dwelling	with family	56	33.5	14.50	10.81	4.594(0.011)	3.74	0.77	3.012(0.052)	
	dormitory	58	34.7	14.05	10.12		a,b<c	3.67		0.63
	by own	53	31.7	19.81	12.14		3.41	0.78		
G.P.A	below 3	10	6	21.90	10.01	2.461(0.065)	3.17	0.56	5.088(0.002)	
	3.0-3.5	43	25.7	17.79	12.81		a>d	3.38		0.80
	3.6-4.0	89	53.3	15.67	10.88		3.67	0.72		
	over 4.1	25	15	11.92	8.90		3.97	0.54		
boyfriend/ girlfriend	yes	71	42.5	14.06	9.63	3.862(0.051)	3.76	0.64	5.132(0.025)	
	no	96	57.5	17.49	12.17		3.50	0.79		
No. of siblings	none	11	6.6	17.91	10.71	0.912(0.437)	3.74	0.50	1.765(0.156)	
	1	106	63.5	16.75	12.36		3.53	0.74		
	2	36	21.6	14.78	8.77		3.68	0.84		
	more 3	14	8.4	12.29	7.87		3.96	0.44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6	3.6	27.00	8.63	17.651(<.001)	2.92	0.27	9.584(<.001)	
	so-so	63	37.7	20.98	12.56		a>c	3.39		0.79
	satisfied	98	58.7	12.17	8.59		3.80	0.66		
adaptation of school life	hard to do	78	46.7	20.55	12.24	27.361(<.001)	3.40	0.77	12.66(<.001)	
	no problems	89	53.3	12.07	8.60		3.79	0.66		
energy direction	E	60	35.9	14.95	9.80	0.861(0.355)	3.75	0.71	3.308(0.071)	
	I	107	64.1	16.64	12.00		3.53	0.74		
perception function	N	63	37.7	15.49	12.48	0.23(0.632)	3.63	0.74	0.059(0.809)	
	S	104	62.3	16.36	10.50		3.60	0.74		
judgement function	T	66	39.5	16.03	11.98	0(1)	3.74	0.66	3.62(0.059)	
	F	101	60.5	16.03	10.82		3.52	0.77		
behavior patten	J	73	43.7	15.74	10.30	0.086(0.77)	3.67	0.70	0.721(0.397)	
	P	94	56.3	16.26	12.00		3.57	0.76		
function of MBTI	NT	30	18	16.47	13.10	0.285(0.836)	3.56	0.65	3.224(0.024)	
	NF	33	19.8	14.61	12.03		3.69	0.82		
	ST	36	21.6	15.67	11.15		3.89	0.65		
	SF	68	40.7	16.72	10.20		3.44	0.74		
types of MBTI	ENTJ	8	4.8	17.75	13.54	0.961(0.499)	3.60	0.62	2.032(0.016)	
	ENTP	3	1.8	13.67	12.66		3.57	0.67		
	ENFJ	4	2.4	22.50	10.66		3.28	1.16		
	ENFP	11	6.6	10.55	8.15		4.01	0.73		
	ESTJ	10	6	16.30	11.56		3.81	0.61		
	ESTP	2	1.2	20.00	0.00		3.50	0.00		
	ESFJ	11	6.6	15.64	5.94		3.70	0.67		
	ESFP	11	6.6	12.09	9.07		3.85	0.83		
	INTJ	8	4.8	18.25	12.85		3.36	0.64		
	INTP	11	6.6	15.00	14.59		3.68	0.72		
	INFJ	6	3.6	9.67	7.69		3.87	0.75		
	INFP	12	7.2	18.17	15.37		3.44	0.76		
	ISTJ	12	7.2	16.17	12.85		3.84	0.84		
	ISTP	12	7.2	13.92	10.66		4.08	0.51		
ISFJ	14	8.4	13.14	6.79	3.62	0.63				
ISFP	32	19.2	20.25	11.88	3.14	0.68				

※ post hoc : sheffe test, \*G. P. A:Grade Point Average, Myers-Briggs Type Indicator, E:Extroversion, I:Introversion, S:Sensinng, N:Intuition, T:Thinking, F:Feeling, J:Judgment, P:Perception

### 3.2 대상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에서 0~15점을 정상으로, 16~20점을 경미한 우울, 21~25점을 중한 우울, 25~60점을 심한 우울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우울의 정도를 보면 정상으로 측정된 대상자가 92명(55.1%)로 가장 많았고 경미한 우울이 31명(18.6%), 중한 우울이 16명(9.6%), 심한 우울의 경우도 28명(16.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우울의 정도는 16.03±11.26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61±0.74점으로 나타났다(표 2).

Table 2. Level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n=167)

	M±SD	Ranges
Depression	16.03±11.26	0-60
Normal(0-15)		92(55.1%)
minor(16-20)		31(18.6%)
moderate(21-24)		16(9.6%)
severe(25-60)		28(16.8%)
Self-Esteem	3.61±0.74	1-5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별 우울과 자아존중감정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별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MBTI의 성격유형 선호지표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에너지 방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행동양식 모든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BTI 심리기능지표에서는 경우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24, p=0.024). MBTI의 성격유형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32, p=0.016)(Table 1).

### 3.4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관계(r=-.640, p<.001)가 있었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성격유형 선호지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 (n=167)

	EI	SN	TF	JP	Depression	Self-Esteem
Depression	0.072	0.037	0	0.023	1	-.640
Self-Esteem	-0.14	-0.019	-0.147	-0.066	-.640	1
	0.355	0.632	1	0.77	<.001	
	0.071	0.809	0.059	0.397	<.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MBTI성격 유형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켜 주고, 자아존중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의 정도는 16.03±11.26점으로 경미한 정도를 보여주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13.61점[16], 16.57점[7], 12.28점[17]을 보여 간호대학생의 정도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의 정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그 정도는 14.94점으로 간호대학생과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었으나[19], 일반 대학생의 경우 18.75점으로[20] 그 정도가 간호대학생들 보다는 높았으나 몇 개의 연구와의 비교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결과만을 미루어 일반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들과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거주 방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20] 역시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우울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했다. 이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가족이나, 혼자 자취를 하는 것 보다 더 우울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 주변인들, 특히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은 전공만족, 학과적응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공만족과 학과적응의 경우는 학생으로서의 학과공부와 학교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변의 환경에 대한 만족이나 적응이 우울에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역시 우울이 전공만족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했다[21]. 또한 대학생활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5,16]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MBTI성격 유형에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MBTI성격유형의 선호지표별 우울의 정도는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이 상대 선호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였다[22]. MBTI의 심리기능지표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SF형이었고, SF형은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으로 직접적으로 수집 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이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관이나 개인적 온정이 개입되는 유형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선행연구들에서도 같은 결과였다[22-2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심리기능지표와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BTI 성격유형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ISFP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성격유형 선호지표에서도, 심리기능지표, MBTI 성격유형에서도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우울과의 차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3.61 \pm 0.74$ 점으로 측정되었고, 선행연구에서 3.11점[12], 3.37점[26], 3.63점[27], 3.84점[28]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성적, 이성친구의 유무, 전공만족과 학과적응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적의 경우는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점은 학생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9].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통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2,30].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31].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에 적응이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 학과적 차원과 학교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학과 입학시점에서부터 학교생활에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비교과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성격유형 선호지표에서 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이 상대 선호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였다[32]. 심리기능지표에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ST형(감각사고형)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32,33].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서는 ISTP의 유형이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의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지표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때 간호대학생들의 우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어 간호대학생들이 어려운 학문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 심리기능은 우울에는 특이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자아존중감의 경우 심리기능지표와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성격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변인들을 활용하여 주거의 형태를 고려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학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전공만족, 학과에 잘 적응하는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학점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일개 대학의 대상자만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지역과 학년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Mental Health Project Guide", Sejong: Mental Health Policy Division, Health Policy Bureau,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 [2] G. Y. Lee, M. N. Kim, S. H. Kim, Y. R. Kim, M. H. Seo, K. H. Yang, M. H. Ju, J. H. Choi, "A Study of Student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nges Before and After COVID-19", Gyeonggi: Gyeonggi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21.
- [3] Health Insurance Review Service, Analysis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Last 5 Years (2017-2021).
- [4] I. K. Seo, Y. S. Lee, "To Verify a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Considering Suicide: Comparing Between a Female Group and Male Group",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Vol.16, No.3, pp.25-53, 2014. UCI: I410-ECN-0102-2015-300-000209447
- [5]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59-26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59>
- [6] Y. S. Kim, K. H. Kwon, "The Comparison of the Stress, Sleep Disturbanc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pression Level in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Innovation*, Vol.20, No.1, pp.13-23, 2016. UCI: I410-ECN-0102-2021-500-000999221
- [7] S. H. Kwon, H. G. Son, K. M. Kim,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685-1697,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3.1685>
- [8] E. C. Jung., D. C. Kim, "A Study on Color Response of Affective Liability : Focusing on the Main Response Color(Light) and Tone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 by Age Group",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Vol.22, No.1, pp.87-107, 2022. DOI: <https://doi.org/10.18253/kart.2022.22.1.05>
- [9]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USA.
- [10] K. S. Noh., "The proper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for dissertation", Hanbit Academic INC., 2019.
- [11] S. Y. An, B. Y. Choi, J. H. Kim,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2, No.3, pp.385-405, 2015. DOI: <https://doi.org/10.16983/kjsp.2015.12.3.385>
- [12] J. S. Kim, S. U. Kim, "A Converged Study on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5, pp.48-54,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048>
- [13] J. T. Kim, H. S. Shim, "A validit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 No.-, pp.44-57, 1990.
- [14] K. K. Chon, S. C. Choi,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1), Vol.6, No.1, pp.59-76.
- [15]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11, No.1, pp.107-130, 1974.
- [16] H. R. Nam, "The Effects of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Depress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8, No.1, pp.99-103, 2023. DOI: <http://dx.doi.org/10.31152/JB.2023.02.8.1.99>
- [17] K. H. Yoo, "A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125-135,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1.125>
- [18] K. H. Kim,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9 pp. 703-710,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9.703>
- [19] J. E. Hong, B. E. Kim, S. W. Choi.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Depression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9, no.1, pp. 15-24, 2020. DOI: <https://doi.org/10.15842/kicp.2020.39.1.002>
- [20] H. S. Hyun., Y. Y. Kim,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between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6, pp. 125-135,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16.125>
- [21] Y. R. Lee, J. H. Cho,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0, pp. 249-263,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20.249>
- [22] J. M. Park, J. H. Kim, "Decision-Making Sty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Innovation*, Vol.25, No.1, pp.37-46, 2021. DOI: <https://doi.org/10.38083/JKNS.25.1.202102.037>
- [23] J. H. Kim, M. H. Lee,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new graduated nurses", Vol.21, No.5, pp. 312-319,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5.312>
- [24] M. O.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303-31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30>

- [25] M. R. Lee, U. K. Kwag, "Personality type, ego state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 Sociology*, Vol.7, No.5, pp.523-533,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5.047>
- [26] S. Y. Kim,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ety*, Vol.10, No.2, pp11-22, 2020.  
<http://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7800879>
- [27] J. U. Seo, J. W. Han,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 *Culture and Convergence*, Vol.45, No.8, pp.1005-1014, 2023.  
DOI: <https://doi.org/10.33645/cnc.2023.08.45.08.1005>
- [28] S. Y. Park, SM. Koo, "The Effect of Body Image and Self 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 pp.158-168,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1.158>
- [29] N. K Lee, N. W. A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the image of a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focused on subject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pp.81-93, 2021.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1.5.2.81>
- [30] E. J. Oh, G. G. Jo, Y. K. Jung,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6, pp. 2583-2596,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6.182>
- [31] E. J. Oh, K.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Worry on Adjusting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1, pp.110-11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110>
- [32] J. S. Kim, J. H. Oh, "Relationships of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by Mye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9, No.1, pp.335-343, 2021.  
DOI: <https://doi.org/10.22961/JHCLS.2021.9.2.335>
- [33] J. M. Park.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yles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7, No.1, pp.20-26, 2022.  
DOI: <https://doi.org/10.21032/jhis.2022.47.1.20>

조 영 미(Young- Mi Cho)

[정회원]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 Long Beach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한방간호, 질적연구, 간호교육